社 說

국교 교과서에서 제이름 찾은 5·18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 지역의 국민학교 교과서에 실린다는 소식이다. 그 소식을 접하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간다. 그 가운데 하나는 5·18이 후세들에게 가르쳐지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제 활달께 자리 매겨지는구나 하는 느낌이요, 또 하나는 과거 우리 역사상의 많은 사건들이 그랬듯, 5·18도 진상 규명다운 규명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착잡한 느낌이 그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실로 우리 현대사를 거꾸로 생각하게 만든 중요한 예포크였다. 그것은 국가와 권력을 짓밟 선 눈으로 지켜보게 만든 계기이자, '뢰로 다김한 맹방(血盟)'이라던 미국을 피가 선 냉정한 눈으로 다시 헤아려보게 만든 계기이었으며, 우리 내부에서 은연중 구획되어 가던 지역차별의 문제에 새롭게 눈뜨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다. 실로 그것은 매양 저 멀리 눈을 들어 따라갔던 근대 서구적 삶에 대해 회의하게 만든 실마리이자,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의 발밑을 살핌이 따져보게 만든 출발점이기도 했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운동일 뿐만 아니라, 자주화운동이었으며, 그것은 끝내 남북이 하나될 통일운동의 시작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감회에 젖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칫 역사 교과서에 실림으로써 생생하고 처절하던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죽어버린 사건 사태들의 더미 속에 '액자화'되어 숨어버릴 개연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사건의 하나로서만이 아니라, 기필코 망월동 묘지의 처절하고 장엄했던 죽음들과 중첩되어 생생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 생생함은 실로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속에서 그려졌던 사실적인 수준정도여도 가하다.

그 작업은 국민학교 선생님들의 손에 달린 것일은 물론이다. 그러나 선생님들께 당부드리고자 하는 점은 그 생생한 전달이 결코 증오를 확산시키는 식이어서는 안되며, 그 운동의 민주화에 대한, 자주화에 대한, 그리고 통일운동의 선구적 활동으로서의 성격에 촛점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공주의 어린이들이 기성 권위에 반발하는 야성(野性)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 추동적 존재로서 성장하는 기백과 지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의 어린이들이 가까운 조상들의 그 처절했던 희생을 거름으로 삼아 민주주의와 민족 자주, 그리고 평화통일의 기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것이다.

학생회 사업은 한철 장사 아니다

— 산·자대 학생회를 바라보며

학생회가 표류하고 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에서도 학문적인 영역은 교수가, 자치활동에서는 학생대표가 각각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자신의 생명력과 주어진 사회적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 교수의 학문적 지도와 자치활동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대학과 대학인은 지적호기심은 물론 자발적 참여의 욕구를 만족시킬 통로를 찾지못한 채 그 존립의 근거마저 잃게될 것이다. 대학사회의 골간을 구성하는 두 흐름이 조화롭게 접목되어야만 대학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고 감안할때, 최근 몇개 단대 학생회의 대표선출을 둘러싼 진통은 학내 자치활동 전반에 대한 위기감 마저 감돌게 하고 있다. 진정 일반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자 했다면, 이미 지난학기와 방중에 자기 대표선출및 집행부 인선이 마무리 되어졌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강이후 전임집행부와 현직대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나태함이 탓들려 지금까지 그 누구도 뚜렷한 해결책을 강구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한 귀결로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를 노정시켰고, 당면한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많은 공약들이 좌초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대 학생회장선거를 전제로 한 '선관위 선출에서 대의원들의 첫 모임이었음에도 정원 21명중 불참자가 무려 6명이나 되었다. 한발 양보하더라도 그 사안의 비중에 비추어 볼때 '사전홍보가 미흡했다'는 궁색한 변명은 오히려 그들의 얕은 현실인식의 정도를 강조한 셈이 되었다.

자연과학대의 경우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자연과학대는 이미 지난 학기에 학생회장 선출과 인선을 매듭지었으나 당선된 임후보자가 3학기 연속 학사경고를 받아 현재 제적이 된 상태다. 자연대 학생회와 대의원회는 학교당국의 계획된 처사라는 입장을 보이며 학생회 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학생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대 학생들의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자대학생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회장 본인은 제적조처에 대해 학교당국의 작의적인 처사이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 그가 자신의 정당함을 명명백백히 입증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거취문제에 대해 먼저 자연대 학생들에게 알렸어야 옳았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짐묵하는 다수 대중의 알 권리보다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더 중하게 느껴진다면 그는 이미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92년 학칙이 개정된 이후로 학생회와 학교당국간의 학사경고및 재적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학생회 운영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느 한편만의 양보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체에, 학생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키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후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제 더이상 '학생회 사업은 한철 장사다'라는 악의 어린 독설이 정설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공익성과 경쟁력의 두 수레바퀴

사론

방송구조개편과 매스미디어의 미래

박 종 수
〈신문방송대학원 강사〉

최근 정가와 방송계 일각에서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관심이 끄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심을 끌만한 논쟁거리가 내재하고 있다. 다름아닌 숨은 의도와 밝혀진 의도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

숨은 의도에 대한 관심은 방송구조개편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혹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방송구조개편은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단행된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나름대로의 이유로 부분적이나마 방송구조개편이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구조 개양산하는데 재벌기업의 참여, 겨냥으로 더욱 그러한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케이블 TV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민영방송인 SBS가 출발하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다.

이윤추구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재벌기업이 방송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탈규제 정책이 확산되는 것은 선정성의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결국 시청자들이 폭력과 섹스로 무장(??)된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가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방송산업론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의의 초점은 새로이 WTO출범에 따른 개방적 무역체제와 국내 방송산업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롯한다. GATT체제 이래 '공정하고 자유로운'무역질서를 최구해온 다국적 자본은 선진화된 기술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마켓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며, UR타결 이후 새로운 무역질서는 결국 방송산업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송프로그램을 비롯한 서비스산업을 우선협상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유유통과 대외개방의 폭을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영화와 비디오, 광고 등의 시장이 크게 개방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로 예정된 영상부문의 개방일정을 더 빨리 앞당기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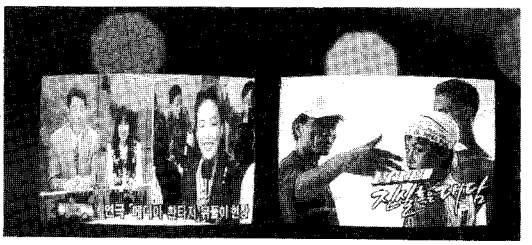
방송산업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준거는 다름아닌 방송관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점이다. 디지탈 방식과 위성전송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결국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가속화하고 멀티미디어 시대를 도래케 하며 방송채널의 엄청난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송산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부각하면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관련법·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단순한 공공서비스 테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과해서 안되는 사실들이 몇가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까지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영방송, 그리고 위성방송 등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2~3년 내에 본격적인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지역민영방송은 1994년도에 이미 대도시에 4개가 허가되었고 앞으로도 도청소재지가 있는 중소도시에 7~9개의 지역민방이 추가로 허가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은 이미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25개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지난 3월1일자로 개국을 하였고, 금년도에 62개 방송사업자와 10개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추가로 허가될 계획이다.

그리고 위성방송의 경우 금년 7월에 무궁화호 위성을 발사하고 금년말 방송을 예정으로 디지탈 위성방송용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12개의 채널이 위성방송용으로 활용가능하다.



국민요구 반영하는 방송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있어 또 한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사항은 우리사회에서도 이제는 사회문화적 발전에 따른 수용자의식이 성숙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인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이러한 국민적 여망과 요구를 새롭게 조성되는 향후 방송환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공익성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방송의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며, 수용자 주권 확립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방송산업의 자율성 확보와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꾀할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적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론·방송산업론, 이분법적 논의 지양돼야

재벌기업의 방송산업 참여 규제정책 절실

편논의가 제기되면 우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혹시 이번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공공성과 선정성

이와 관련해 상호 상반되는 주장의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게 특색이다.

첫째, 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언제나 국민의 자산이며, 국민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매체로서 강조돼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방송은 이제 국제적인 단일시장의 조건속에서 경쟁하기 위해 단지 공공성 만을 강조하기 보다 제조업의 하나로 간주하고 자유롭게 자유시장원리에 맡겨 경쟁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는 방송산업론적 입장이다.

마지 크게 대별되는 듯한 이러한 두가지 입장은 상호 대치되는 듯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수레바퀴 처럼 양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레 그 입장들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제기하는 가장 본질적 문제의 하나는 결국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프로그램이 우리의 안방에 거침없이 찾아올 것이라는 선정성의 문제와, 이런 프로그램을 규제하고 멀티미디어 시대를 도래케 하며 방송채널의 엄청난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송산업이 국가기간전략산업으로 부각하면서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관련법·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은 단순한 공공서비스 테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으로 강조되면서 구체적인 산업화 전략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간과해서 안되는 사실들이 몇가지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6년까지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영방송, 그리고 위성방송 등의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2~3년 내에 본격적인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지역민영방송은 1994년도에 이미 대도시에 4개가 허가되었고 앞으로도 도청소재지가 있는 중소도시에 7~9개의 지역민방이 추가로 허가될 예정이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은 이미 5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25개 프로그램공급업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지난 3월1일자로 개국을 하였고, 금년도에 62개 방송사업자와 10개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추가로 허가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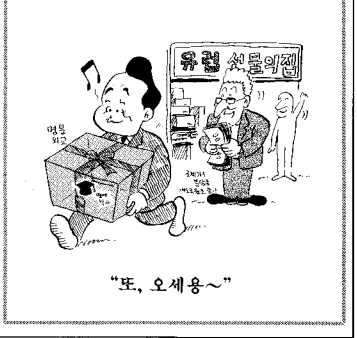
그리고 위성방송의 경우 금년 7월에 무궁화호 위성을 발사하고 금년말 방송을 예정으로 디지탈 위성방송용 시스템 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12개의 채널이 위성방송용으로 활용가능하다.

국민요구 반영하는 방송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는데 있어 또 한가지 간과해서 안되는 사항은 우리사회에서도 이제는 사회문화적 발전에 따른 수용자의식이 성숙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문화적 수준의 향상, 그리고 민주적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인해 방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양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분법적인 논의를 지양하고 이러한 국민적 여망과 요구를 새롭게 조성되는 향후 방송환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공익성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방송의 산업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포함해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며, 수용자 주권 확립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안을 가지고 방송산업의 자율성 확보와 방송매체간 균형적 발전을 꾀할 것인가 하는 국가정책적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내가 경험한 LG
① 인턴사원 백진규편

LG에서 인턴생활을 하기 전까지 내가 갖고있던 LG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사실 '보수적', '인간적'과 같은 단어들이 연상되었다.
그러나 짧은 인턴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혁신적' '역동적'이라는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게 된다.
특히 내가 LG전자에 근무하던 2주 동안은 럭키금성에서 LG로 그룹의 로고가 바뀐다는가 자유 출퇴근제의 도입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회사를 술렁이게 하고 있었다.
사실 신제도가 맨 밑에 있는 사원에게까지 전달되어 운영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명령에 죽고 산다는 군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전달되어서 제대로 실행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LG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 범위와 속도를 볼 때 다른 기업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LG는 그동안 7년이상 지속된 변혁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경험했다.
경영혁신을 제일 먼저 외친 것도 LG였고, 고객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역설한 것도 LG였다.
긴 시련의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은 변화와 혁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LG로 새롭게 출발하며 제2의 혁신을 외치는 그들에게는 분명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도약을 위한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분명히 'LG는 있다'—
그들의 활기찬 행동과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진규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4년)
('95 LG전자 통계인턴사원)

LG